

#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 좌담회

일 시 : 2004년 2월 24일(화) 오후 4시~5시

사 회 : 김동일(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 · 교육학과)

참석자 : 서유현(독립연구과제 지도교수 · 의학과 약리학교실)

박진우(독립연구과제 지도교수 · 산업공학과)

최재천(독립연구과제 지도교수 · 생명과학부)

김재범(세미나 튜터 · 생명과학부 교수)

박구병(세미나 튜터 · 서양사학과 박사과정)

한경자(세미나 튜터 · 철학과 박사과정)

홍성두(세미나 튜터 ·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희원(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회가 끝나고 독립연구과제의 지도 교수와 소그룹세미나 튜터가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도 교수와 튜터들은 한결같이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며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교육학과의 김동일입니다. 모두 지금까지 지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회를 보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저는 결과 발표를 보고 학부생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지도 교수님과 튜터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면서 간단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서 실제 연구 진행 과정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많겠죠?

**교수학습개발센터:** 저희는 이번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도하신 교수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도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유현:** 저는 이번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활성과 학습 및 기억력에 대한 천연물(3종)의 효과>를 발표한 우예진(생명과학부)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 학생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우리가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연구소에 와서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연구소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험실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생각이나 이론과는 참 다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죠. 그 학생은 지금 까지 1년 이상 저희 실험실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입니다. 학부생의 신분으로서는 강의를 주로 듣게 되지, 실습은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데요, 우예진 학생 본인의 말로도 예전에 어떤 데이터를 볼 때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해보니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쥐를 잡아 주사 놓는 방법조차 몰라, 결국 제가 잡아서 주사를 놓아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실험실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의 대학에 비해 서울대학은 실험실에서 본인이 앞으로 전공할 분야에 깊이 참여하면서 과학을 대하는 태도(Attitude)를 배우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의는 그리 부족하지 않고, 실습이나 실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다른 분야의 과학도 참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대학원도 이쪽으로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한데, 우리 실험실은 이공계 실험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의과대학에 와서, 우리 실험실로 오면 되거든요.(웃음) 의과

대학하면, 대부분 임상학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참 문제지요.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가는 분위기를 탓만 하지 말고, 그런 학생들이 이런 기초 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 시절에 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더 이공계를 기피합니다. 이번에 저희 의과대학이 50명의 편입생을 받았는데, 대다수가 이공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목적이 대부분 돈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와서 생명공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참 좋은데, 일단 오면, 기초 과학 분야로는 절대 안 옵니다. 대부분 임상학으로 갑니다. 짧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공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우:** 저는 인쇄물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도한 임세

진 군은 〈서울대학병원 고객만족도 분석〉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임군은 본래 이 논문을 쓰기 전부터도 보건대학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직접 조사 연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는 보건대학원으로 확실히 진로를 결정하고, 지원해서 합격통지서까지 받았지요. 결과보고서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잘 써주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직접 적용된 것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김동일:** 저 역시 이것 외에도 약 100만원 정도 주는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가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박진우:**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인재 한 사람 길러주신 것입니다.

**최재천:** 제가 지도한 이연미 학생이 제일 독특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미대 학생이 와서 자연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니까요. 조소과인 이연미 학생은 〈땅벌의 일꾼계급에서 나타나는 분업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많이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전공에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전공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

## | 특집 | 학부생의 학문을 향한 첫 걸음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높아지고 제출한 연구계획서에서 지원 학생이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런 학생이 뽑히긴 힘들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예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친구 아주 씩씩해요. 미대생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첫마디가 ‘미대 일이 아주 막 노동이라서. 전혀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연미 학생은 아주 뚝심이 있었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논문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공계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의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공계 강의를 하나 들었다고 해서 진로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앞으로 특별히 이공계



결과발표회 당일 소그룹세미나에서 플라톤의 「대화편·파이돈」을 강독한 정소영 학생(인문대학 철학과)이 발표를 마치고, 김동일 교수(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다른 부의 장관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 하면 금세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공계 쪽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게도 많이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범:** 저 역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따로 부연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본래 저희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모여서 공부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신청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정해 진취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독립연구과제처럼 실험을 하지 않았고, 주로 Follow Study나 문헌 공부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 경우 약 30명 정도의 그룹으로 꾸려졌습니다. 학부 전체의 공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공을 꼭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이공계 분야는 실험이 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로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고,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직접 진행해보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눈으로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잘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저희 학과는 대학생 논문 대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6개 월이나 1년 정도 과제를 조사 연구해서 주제 별로 발표합니다. 전공 관련 연구든, 학제적인 공동 연구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학과와 학부 별로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그러한 논문 대회는 사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이처럼 교수님을 지정해서 시작부터 교수님이나 튜터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구병:** 저는 박종석 학생 그룹의 〈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나타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와 개혁정책〉의 튜터를 맡아서 활동했는데요, 사실 학부생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사 내에서도 유럽이 중심이고, 미국조차 변방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더더욱 관심사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어떻게 학계나 일반인에

게 인식되어 있는가 하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종석 학생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 한 그룹은 같은 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인문대 기초과정 학생과 사회대에서 아직 전공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개인적인 연고에 따라 꾸려진 팀이기 때문에 주제에 걸맞게 팀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보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자면, 박종석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수업보다 이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하고 싶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학습개발센터:**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네요. (웃음)

**박구병:** 워낙 한 학생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열의가 있고 박학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네다섯 나라로 추려서 결과 보고를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 | 특집 | 학부생의 학문을 향한 첫 걸음

**홍성우:** 저는 이 프로젝트의 투터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생들의 이런 프로젝트 지도를 교수님에게 맡기지, 왜 박사과정 학생에게 맡기나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박사과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학부 학생들에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본래 인문대학에 속한 학생들은 고시를 보려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팀원 가운데 본래 고시를 보겠다고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문의 후속세대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경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플라톤의 『대화편·파이돈』을 강독했습니다. 제가 그 강독 모임에 참석해 강독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3~4학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었던 학회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받아서, 강독모임이 이전보다 훨씬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희는 인문학이라서 활동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도서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도서 구입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김동일:** 일단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

지고 있는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이 프로젝트는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본래 이것을 연구처에 이관하면서 좀더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저희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오늘의 결과를 들어보니,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사실 이공계 살리는데 이처럼 괜찮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진우:** 저는 학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만족도나 결과를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고, 프로그램 자체로도 매우 좋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줄이면 안 되고 오히려 얼마나 더 늘리느냐가 좀 더 문제가 되겠죠.

**교수학습개발센터:** 지원비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진우:** 저희들이 물론 지도교수라고는 하지만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 저희 지도교수에게 오는 비용은 줄이셔도 괜찮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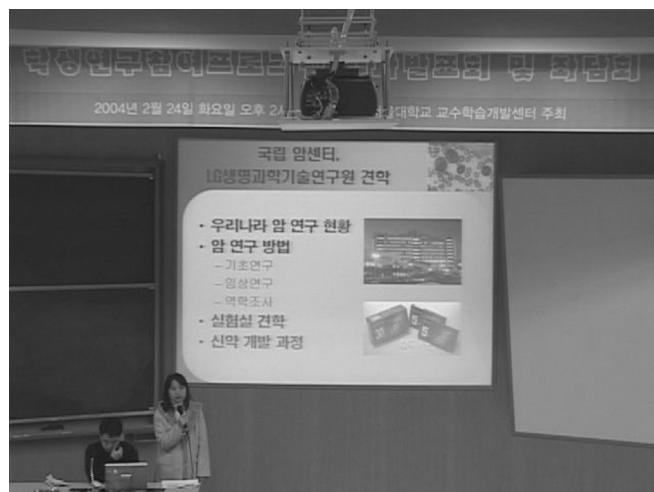
**한경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립연구과제에 대한 지원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소그룹세미나에 대한 지원금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 그룹은 튜터를 제외하고 7~8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 지원금으로 교재 구입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문대라 경비가 적게 들었지만, 다른 팀들에게 대단히 적은 액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그룹 세미나와 프로그램도 좀더 육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천:** 저도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비 쓰면서,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게 귀찮아 죽겠는데, 물론 배워야 하는 일이기는 한데, 학생에게 그런 일까지 모두 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면 생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더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 학생이 영수증 챙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김동일:** 지금까지 모든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튜터나 지도교수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기 계신 튜터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이는 관심은 단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수학습개발센터:** 지금까지 지도교수나 튜터로서 활동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소그룹세미나에서 〈암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및 전망〉을 연구한 최진욱 학생(자연대학 생명과학부)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